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2. 전도와 양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2020년 3월 29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사 43:14-28

제목 : 꽃이 피는 신앙 · 부지런한 일꾼(9)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십시오.”

말씀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 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어 질 때에는 성도들은
특히 잘 대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시기
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대처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눈여겨 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
보다 잠잠해 지는 기간이 길어지니 모두가 힘
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
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 자녀들인 저나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눈여
겨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
도들은 정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 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본
문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셔서 코로
나 19뿐만 아니라 삶에 만나는 고난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크게 세부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 1부는 1:2-35:10입니
다. 제 2부는 36-39장입니다. 그리고 제 3부는
40-66장입니다. 이 부분을 구약 속의 신약으
로 말합니다.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회복
과 종말론적인 구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
다. 3부부터는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
지가 선포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 점
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
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백성
들이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는 말입
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
을 잘 알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갈 때도 그 사람
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관계가 좋아
집니다. 예컨대 그 분이 추어탕을 싫어하는 데
이것을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고 하면서(언
젠가 길을 가다가 식당 간판을 보니 <기운 펄
펄 추어탕>이라는 간판을 본 것이 생각이 나
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먹자고 하면

그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그 식사자리가 고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 주셨습니까? 사 43:14-15입니다.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너희의 구속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 49:15-16입니다.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허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여인이 있을 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즈음 우리는 코로나 19의 예방을 위해서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씩 손을 씻습니다. 살면서 하루에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손바닥 안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새긴 그의 백성들을 들여다보시며 돌보시고 성벽이 되어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로생활이 고달파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성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포로생활의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써 구별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법이 세상 사람들과 대처하는 모습이 구별되는 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조자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고난입니다. 코로나 19도 아주 특이하고 고약한 바이러스 군입니다. 이것이 침투하면 열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몸에 근육통도 따릅니다. 폐에 치명적인 염증을 빠르게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려서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포로생활이지만 포로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포로생활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너희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그 왕의 밑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너희 왕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처럼 모든 나라들을 통치자들을 다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면서 잘 대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생활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바벨론 포로생활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간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렘29: 4-11절입니다.

"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

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인구가 많은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산아제한 이후로 인구수가 적어져서 고민이 큼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7절 이하로 갑니다. “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곧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9.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이 일찍 끝난다는 미혹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 받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계속 10-11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70년을 평상시처럼 생활하며 잘 견디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소망 가운데 잘 견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40:27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구절에서 사용한 <길>은 <포로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는 <하나님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송사>는 <법정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말하는 탄원>입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것은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응답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 려가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새 일이 곧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 43:19-22입니다.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목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생활과 공의를 행하는 삶, 간절한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예배생활 못지않게 삶속에 공의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일 즉 삶을 통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지 못 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전주에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 부인하면서 자신이 죽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술의 고백,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19의 퇴치를 위해서 평일 오후 7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해서 저도 약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당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3일 지났을 때 사모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기도 시에 찬양하고 수요 예배 시에도, 금요심야기도 시에도 주일 예배 시에도 찬양을 했는데 이쯤 본당에 찬양이 들려지지 않으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네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몇 곡 부르자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렇구나,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지 공감을 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3곡정도 찬송을 독창처럼 부르고 시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위로가 되는 찬양을 택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제 자신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주 부른 찬양은 이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하나님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왜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구속자이시며 거룩한 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멸망당하도록 준비시켰으니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런 좋으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술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1절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힘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힘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퇴치되지 않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19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난의 때를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버리고 공의롭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실 때는 모든 우상숭배의 모습을 버리고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삶에 고난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 질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시며 창조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터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이 많이 불러 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